

朝鮮後期 觀察使 및 守令의 官職利用 刊本 - 嶺南地方을 中心으로 -

A Study on the publications printed by some provincial governors during their government positions in the late Chosun Dynasty.

趙 婷 化 (Jung-Hwa Cho)*

목 차

- | | |
|------------------|----------------|
| 1. 序 論 | 3.3 스승 顯揚 |
| 2. 觀察使 및 守令의 役割 | 3.4 緣故者 顯揚 |
| 3. 官職利用 刊本の 刊行目的 | 4. 官職利用 刊本の 性格 |
| 3.1 著者自身 顯揚 | 5. 結 論 |
| 3.2 祖上 및 親族顯揚 | |

抄 錄

官職利用 刊本이란 觀察使 및 守令이 官職을 利用하여 約간의 行下만 支給하고 官의 物資를 使用해서 私的으로 刊行한 典籍을 말한다. 이들 간본들의 분석을 위하여 〈鑄板考〉 등 册板目錄에 수록되어 있는 책판을 대상으로 現存 本과 對査하고 이어 序文 跋文의 刊印記錄을 조사하였다. 그 結果에 依하면 八道 中 嶺南地方에서, 대개는 觀察使 나 守令의 赴任地에서, 그들 조상의 문집들이 가장 많이 간행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그당시 嶺南地方 社會性格 의 一面을 반영하고 있다고 하겠다.

* 상명대학교 문헌정보학과 강사
접수일자 : 96. 5. 15

ABSTRACT

This study is to purposed to analyze the publications printed by some provincial governors during their government positions at Young Nam province in the late Chosun Dynasty.

To examine the characteristics of the publications, the data used are some original transcripts and the related materials that include publication information in their prefaces from currently usable original transcripts and woodblock catalogs such as Lupango(鏤板考).

The results showed that the publications were most commonly printed in the Youngnam Province and the reason of the publication was to collect their ancestors' works at their posts. From the fact, we can recognize the social situations and backgrounds in the Young Nam Province during the time.

1. 序 論

嶺南地方은 조선조에 들어와 유교의 倫理觀이 영남인의 土着的 執拗性에 잘 융합되어 나름대로의 한 문화를 형성시켰다. 小白山下의 退溪의 학문과 頭流山下의 南冥의 학문이 兩大學問의 山脈을 형성하였고¹⁾, 이 兩大山脈을 주축으로 巨儒들이 등장하였으며, 이들에 의해 많은 門徒들이 길러졌다. 이들 인물들에 의해 영남의 학문이 면면히 전승되어가고 그 환경은 많은 저술을 낳게 하고 낳은 저술은 그들의 子孫이나 門人들에 의해 간행되었다. 이리다 보니 자연 尙先尊賢의 氣風이 형성되고 마침내는 門閥을 낳게 하고, 급기야는 문벌이 좋은 집안의 출신자가 家門의 배경이 미약한 文科出身者보다 훨씬 入仕 및 昇進에 유리한 위치에 있게 되어²⁾ 이들이 관찰사나 수령이 되면 앞다투어 약간의 行下만 지급하고 官의 物資를 이용하여 자신의 저술은 물론 선조나 스승의 저술 및 문집까지 간행하였다. 그러나 이들 刊本은 官署에서 간행했다 할지라도 엄격히 구분하면 지방민을 위한 간행이라기 보다는 관찰사나 수령이 私的으로 간행한 것이기 때문에 그 성격을 달리하고 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영남관판본의 약 32%³⁾를 차지하는 것은 그당시 嶺南地方의 사회적인 면을 여실히 반영하고 있다고 하겠다.

사실 조선조 개국이후 영남은 八道 가운데 가장 많은 유림이 배출되어 成宗朝 이후로는 정계에 널리 등용되면서 정치적인 주도권을 장악하였다. 정계를 장악한 士林들은 영남학과

를 형성하여 학계에서도 두각을 나타냈으며, 戶口數와 郡縣數⁴⁾가 많고 농업생산성도 높아서 경제력 기반이 강화 되었다. 이러한 정계·학계의 인맥과 경제적 기반을 바탕으로 중기 이후부터는 영남지방의 典籍文化가 활성화되어 후기에는 그 절정에 이르렀다고 하겠다. 그 결과 영남지방에서 간행된 전적이 八道 중에서 首位를 차지하였으며⁵⁾, 官職利用 刊本에 있어서도 嶺南地方에서의 간행이 他道보다 더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따라서 本考에서는 우선 영남지방의 관직이용 간본을 고찰함으로써, 조선조 후기 지방관서에서의 간행에 있어서는 관찰사나 수령의 私的인 간행이 적지 않게 차지하였음을 밝혀 地方官板 연구의 한 모퉁이를 돕고자 한다.

1) 李瀾 星湖僊說 卷一 天地門 東方人文條 .

「中世以後 退溪生於小白之下 南冥生於頭流之東 皆嶺南之地 上道崇仁 下道主義 儒化氣節 如海濶山高 於是乎文明之極矣」

2) 宋浚浩, 朝鮮社會史研究 -朝鮮社會의 構造와 性格 및 그 變遷에 관한 연구, 서울: 潮閣, 1989, p.402.

3) 책관목록에 수록된 嶺南官板本은 334種인데 이들 刊本은 106種으로 약 32%를 차지한다.

4) 李樹健, 朝鮮時代 地方行政史, 서울: 民音社, 1989, p.15.

戶口數: 京畿道 26,545 忠淸道 24,170 慶尙道 42,227 全羅道 24,073 江原道 11,084 黃海道 23,511 平安道 41,167 咸鏡道 14,739.

趙斗淳 等, 大典會通(影印本, 朝鮮王朝法典 4) 吏典 外官職條, 서울: 景仁文化社, 1972. 郡縣數: 京畿道 34 忠淸道 54 慶尙道 71 全羅道 56 江原道 26 黃海道 23 平安道 42 咸鏡道 25.

5) 金允植, 鑠板考의 書誌的 研究, 서울: 成均館大學校(碩士學位論文), 1986, p. 44.

「地方官板의 開板狀況은 八道 중에서 慶尙道가 29 個處, 124部로 가장 많다」

2. 觀察使 및 守令의 役割

조선조는 지방의 통치를 위해서 전국을 八道로 나누고 그 밑에 府·牧·郡·縣을 두어 이른바 郡縣制를 전면적으로 실시하였다. 모든 군현에는 반드시 京官을 파견하여 중앙에서 직접 통치하도록 함으로써 중앙집권적인 관료 체제를 완전히 갖추었다. 이에 따라 팔도에 관찰사가 파견되어 守令으로 통칭되는 道内の 府尹(使), 牧使, 郡守, 縣令, 縣監 등을 관장하였다. 이들 수령은 行政體系上으로는 모두 병렬적으로 직속상관인 감사의 관할하에 있었다.⁶⁾ 이들 관찰사와 수령은 지방민을 다스리는 막중한 위치에 있으므로 그 지방통치의 성공 여부는 이들의 손에 달렸다고도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러한 중대한 임무를 띠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영남지방에서만 106종의 관직이 용 간분을 넣게 했으니 한편으로 지방민을 위한 간행에 힘쓰면서 다른 한편으로 私的인 간행을 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러면 먼저 간행의 주역을 담당한 관찰사 및 수령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하겠다.

관찰사는 그 道の 道廳所在地인 監營에常住하면서 道內를 다스렸으며, 一道의 風軒之任으로서 지방행정상 절대적인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要職인 것이다. 직책에 있어 관찰사라는 본 업무외에도 兵馬節度使, 水軍節度使, 巡察使, 大邱都護府使⁷⁾ 등의 직을 겸직했으므로 一道의 行政權과 軍政權, 그리고 刑政權 등 三權을 크게 행사하였던 것이다.⁸⁾

게다가 守令을 감찰하여 治績을 평가하는

권한까지 가졌으니 그 권한은 실로 크다고 하겠다. 일찌기 世宗은 관찰사로 하여금 임기동안 道內를 부지런히 巡歷하여 수령의 治民을 감찰하고 주민의 여론을 수렴하도록 하며, 특히 관찰사의 주임무인 수령의 殿最에 공정을 기하기 위하여 考課法을 수정·보완한 바 있었다.⁹⁾

관찰사는 一道의 主로서 그 포괄적인 職任을 유감없이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요구되므로 학식과 덕망이 높고 剛直·公正·清廉한 자라야 했다. 관찰사 임용의 배제조건으로서는 踐吏의 자손이나 행실이 옳지 못하였거나 再嫁한 여자의 소생에게는 觀察使職이 제수되지 않았다. 관찰사의 相避規定도 他官職보다 광범하게 제약을 받아 該道の 兵使, 水使, 守令, 營將 등과 친척관계가 되는 자에게는 관찰사에 제수되지 않았다. 또한 관찰사는 원칙적으로 출신도에는 임용될 수 없었다. 이와같이 까다로운 과정을 거쳐 任官되는 관찰사에게는 커다란 임무가 부여됐는데, ① 人的資源에 대한 확보와 관리책임 ② 勸農 ③ 道民에 대한 진휼

6) 韓 祐勳, 朝鮮通史(改正板), 서울: 乙酉文化社, 1986, p. 232.

7) 李樹健, 前揭書, p.190. 「嶺南觀察使가 감사의 소재 邑官을 겸임한 시기를 살펴보면 太宗 8년, 世宗 30년~端宗 2년, 中宗 14년, 宣祖 32년, 顯宗 10년, 肅宗 10년등 감사의 겸관여부가 누차 반복되다가 英祖 34년(1758)부터 1894년까지 大邱府使를 겸하게 되었다.」

8) 張仁鎭, 「朝鮮後期 慶尙監司考 - 특히 大邱監營에서 甲午更張까지의 在任監司를 중심으로-」〈圖協月報〉 21, 1980. p.2

9) 世宗實錄 卷72, 世宗18年 5月 丁丑條.

의 책임 ④ 刑獄에 대한 직무 ⑤ 官學事 즉 민의 教化責任 등이다.¹⁰⁾

이 중 학교를 세워 백성들의 教化를 꾀하는 것은 국왕의 중요정책의 하나인 바 觀察使가 수행하여야 할 중요한 임무이다. 따라서 관찰사는 수령과 함께 도내의 교육과 住民의 교화에 책임을 지고 있었으므로 三綱의 기본이 되거나 儒學獎勵에 필요한 각종서적을 간행하는데 주력하였다. 그 외에 임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서적은 물론 私的으로는 본인 및 조상이나 스승의 저술 그리고 子孫이나 門人 중 財力이 없어 간행하지 못하는 문집까지 간행하였으니 영남의 文化發展이 있기 까지 그 裏面에 관찰사의 힘이 크게 작용하였음을 알 수 있다.

守令은 소관지역내의 백성을 직접 다스리는 책임관으로서, 從 6品職에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만을 임명하였고, 그의 고향이나 田壯保有地에는 부임할 수 없게 하였으며, 관찰사와 族親이 되는 자는 道內의 수령으로 부임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 守令職은 오늘날의 군수하고는 그 성격이 크게 달랐다. 무엇보다도 그 직무의 한계가 매우 넓었다. 行政외에도 司法, 治安, 財政, 兵事, 教育 그 밖에 官內의 모든 문제를 관장, 그것도 혼자서 관장하였다. 守令은 자기가 맡은 고을내에서는 국왕의 統治權을 대표하는 유일한 官員이었으며 따라서 그 고을 내 만백성의 우두머리요 어버이로서 책무를 다하여야만 하였다.¹¹⁾ 丁茶山은 그의 著 <牧民心書>에서 수령을 '萬民之宰'라고 말하고, 또 그들의 職責을 한 국가를 다스리는 일에 비유하여 비록 大小의 차이는 있으나 실질적으로 다를

바가 없다고 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¹²⁾

수령의 治績은 '守令七事'라 하여 일곱가지 조건으로 평가되었다. 즉 ① 農業의 장려 ② 戶口의 확보 ③ 教育의 진흥 ④ 軍政의 수비 ⑤ 賦役의 균등 ⑥ 詞訟의 간결 그리고 ⑦ 鄉吏의 부정방지 등이다.¹³⁾ 이 중 學校興은 국가의 문교정책 장려로 중시되었으며, 유교정치의념으로 무장하려는 조선에 있어서는 강력히 추진되어야 할 필수요건이기도 하였다. 유생을 모아 유교경전을 가르침으로써 儒教的 倫理規範을 확립할 수 있고, 충효사상에 입각한 君臣간의 윤리를 체계화할 수 있는 것이다.¹⁴⁾

이와같은 수령의 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각지방 官署의 사무분장은 중앙의 6조 분장에 맞추어 吏, 戶, 禮, 兵, 刑, 工의 '6方'으로 나누었고, 그 실무는 土着鄉吏들이 담당하였다. 鄉吏가 監營과 兵·水營의 營吏를 포함하는 吏胥들을 지칭하는 표현이라면 邑吏는 營吏를

-
- 10) 世宗實錄 卷22, 世宗5年 12月 甲寅條
「各道監司衙內 兼監倉 安集 轉輸 勸農 管學事 提調 刑獄 兵馬公事」
 - 11) 宋俊浩, 朝鮮社會史 研究-朝鮮社會의 構造와 性格 및 그 變遷에 관한 研究, 서울: 一潮閣, 1989, p.399.
 - 12) 成均館大學校 中央圖書館藏本, B12-1C. 丁若鏞, 牧民心書, 新鉛活字本. 皇城: 廣文社. 光武 6年 (1902)跋
「唯守令者 萬民之宰 一日萬機 具體而微 與爲天下 國家者 大小雖殊 其位實同」
 - 13) 韓祐勳, 前揭書, p.233.
「守令七事: 農蠶盛, 戶口增, 學校興, 軍政修, 賦役均, 詞訟簡, 奸猾息」
 - 14) 李存熙, 朝鮮時代 地方行政制度 研究, 서울: 一志社, 1990, p.164.

제외한 지방군현의 吏胥만을 지칭하는 표현이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邑吏는 官品을 소지한 官人도 아니었고 또 國祿도 지급받지 못하였다. 게다가 鮮初에는 吏職이 鄉役으로 간주되어 천시되기까지 하였다.¹⁵⁾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군현의 모든 統治行政業務가 非官人인 이들에 의해 좌우된 이유는 이들이 지방행정의 實務를 담당했던 일종의 技術人 集團階層이며, 조선시대의 신분제하에서 中人身分에 속하는 下級支配身分層으로서 양반과 더불어 지배신분층의 一角을 구성하였다.¹⁶⁾

대대로 한 지방에 世居하면서 吏胥職을 맡는 것이 일반적이었으므로 地方 官衙의 모든 公事는 실질적으로 바로 이들에 의해 수행되었다. 이들에게는 기술적 요건도 갖추어야 하는데, 그중 하나가 書寫機能이다. 書寫의 기능은 公文書의 작성뿐 아니라 官衙나 鄉校·書院등에 비치하는 書冊의 寫에도 요구되었으며, 서책의 인쇄를 위한 板本의 바탕글씨도 吏胥들이 쓰는 경우가 많았다.¹⁷⁾ 書體로는 正字體의 楷書를 주로 하였다.

전적의 간행에 있어서는 모두 관찰사 및 수령의 손에 의해 이루어진 것만은 아니고, 그 밑에 있는 傭吏 및 邑吏의 도움없이 불가능했을 것이다. 관찰사 및 수령의 명령하에 傭吏 및 邑吏들이 실질적으로 간행업무를 담당하였음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4. 官職利用 刊本の 刊行目的

관직이용 간본의 간행목적에 있어서는 관

찰사나 수령의 自身을 위한 간행, 祖上 및 親族을 위한 간행, 스승 및 緣故者를 위한 간행 등 다음의 4가지로 구분지어 볼 수 있다.

4.1 自身 顯揚

관찰사나 수령이 赴任地에서 자신들의 저술을 간행하였는데, 모두 3종으로 전체 官職利用 刊本에서 차지하는 부분은 미약하다.

〈東史纂要〉(8卷)은 선조때 竹溪 吳瀼이 편찬한 것으로 신라시대 혁거세로부터 고려 공양왕 4년(1392)에 이르는 1449년간의 事蹟을 요약한 신라와 고려의 역사책이다. 이책은 찬자 吳瀼이 광해군 1년(1609)에 慶州府尹¹⁸⁾시에 간행하려 했으나 뜻을 이루지 못하고 이것을 토대로 광해군 6년(1614)에 慶州에서 간행하였다.¹⁹⁾

〈演機新編〉(3卷)은 숙종때의 安明老가 風后, 握奇 법을 推演하여 陣法을 논하고 여기에 陰陽家의 諸法을 덧붙여 엮은 兵書이다. 저자가 현종 1년(1660)에 완성한 후 현종 5년(1664)

15) 李義權, "朝鮮後期 邑吏의 地方通治 行政機能"〈全北史學〉 15, 1992, p.41-42.

16) 李成茂, "朝鮮初期의 鄉吏"〈韓國史論文選集 IV. 朝鮮前期編〉, 1976. p.32.

17) 김필동, "朝鮮後期 地方胥吏集團의 組織構造(上) - 社會的 接近"〈韓國學報〉 28, 1982, p.103.

18) 韓國學文獻研究所 地方志②, 慶州, 서울 : 亞世亞文化社, 1986, p.340.

「戊申九月來 己丑二月罷 去榮川本家」

19) 東史纂要 高大晚松 B3-A66C 零本4册 木板本 吳瀼跋.

低本刊記 : 「萬曆己酉(1614) 鷄林府刊」

에 梁山郡守로 있을때²⁰⁾ 간행하였다.

〈古今歷代標題註釋十九史略通攷〉(9卷)는 曾先之의 〈十八史略〉에 元史를 더하여 만든 것을 조선의 鄭昌順이 편차하고 丁倪祖가 통고한 이 책은 방대한 역사서를 압축, 서술하여 중국 역사를 공부하는 이들에게 호평을 받았기 때문에 여러차례 刊行이 이루어 졌다. 숙종 16년(1690)에 慶州에서 중간하고²¹⁾, 정조 9년(1785) 2월에 編次人 鄭昌順이 嶺南觀察使로 부임하여 嶺營에서 開刊하였다.²²⁾

4.2 先祖와 親族 顯揚

관찰사나 수령이 先祖와 親族의 文集을 간행한 것을 살펴 보면 다음과 같다.

〈益齋亂藁〉(10卷)는 益齋 李齊賢(1288-1367)의 시문집이다. 선조 33년(1600)에 11代孫 時發이 慶州府尹이 되어 간행하고²³⁾, 그 후 숙종 19년(1693)에 鷄林府에서 그의 후손들이 年譜를 보충해서 간행하였다.²⁴⁾

〈孝行錄〉(1冊)은 고려 충목왕 2년(1346)에 權準이 그이 父인 權溥와 함께 중국 고대의 孝行說 62장을 선정하여 李齊賢의 贊을 얻어서 엮은 책이다. 그의 현손인 權近이 주석을 가하여 태종 5년(1405) 鷄林에서 초간하였으며, 선조 33년(1600)에 贊者의 11代孫 李時發이 慶州府尹으로 있으면서 중간하였다.²⁵⁾

〈立巖集〉(6卷)은 立巖 閔齊仁(1439-1549)의 시문집이다. 본집의 初刊本이 임란을 거치면서 산일되자 손자 汝任이 江界府使에 부임 중 順安의 族人이 소장하고 있던 完帙을 얻어 광해군 2년(1610)에 興海郡守로 재임시에 간행하였다.²⁶⁾ 그 후 영조 12년(1736)에 7대손 應洙

가 嶺南觀察使로 부임하여 舊板을 補刻하고 아울러 堂叔 鎮厚가 편집한 補遺를 교수하여 부록 아래에 繼刊하였다.²⁷⁾

〈林白湖集〉(4卷)은 白湖 林悌의 시문집이다. 본집은 저자의 弟 權이 수집하고 李恒福이 刪定한 定稿本을 광해군 13년(1621)에 從弟 咸陽郡守 愷가 增補하여 간행하였다.²⁸⁾

〈高峯先生文集〉(15卷)은 高峯 奇大升의 시문집이다. 본집은 저자의 孫壻 趙繼韓이 1614년 兩先生往復書를 靈巖에서 간행한 후, 인조 7년(1629)에 府使로 있던 善山에서 간행하였다.²⁹⁾

〈漢陰先生文稿〉(12卷)는 漢陰 李德馨(1561-1613)의 시문집이다. 본집은 저자의 子 善山府使 如璜, 尙州牧使 如圭가 가장초고를 인조 7년(1634)에 尙州에서 목판으로 初刊한 뒤, 저

20) 顯宗實錄 卷7, 顯宗 5年 正月 甲辰條.

21) 古今歷代標題註釋十九史略通攷 高大晚松 B4-A85 零本4冊 木板鐵刻本.

「刊記：庚午(1690)孟夏 慶州重刊」

22) 古今歷代標題註釋十九史略通攷 高大漢籍 B4-A85D 零本1冊 鄭昌順識.

刊記：「乙巳(1785)孟冬 嶺營開刊」

23) 益齋亂藁 서울대 古3428-637 10卷, 拾遺, 合3冊. 李時發跋.

24) 益齋亂藁 서울대 古3428-637.

刊記：「崇禎丙子後五十七年癸酉(1693)正月 鷄林府重刊」

25) 孝行錄 奎 1510 1冊 木板本 權近序.

刊記：「萬曆庚子(1600)月城重刊」

26) 立巖集 奎 4579 閔汝任跋.

27) 立巖集 奎 4579 6卷3冊 木板本[閔]者重跋.

28) 林白湖集 奎 1636 4卷2冊 木板本 林悌跋.

29) 高峯先生文集 高大漢籍 D1-A154A 15卷11冊 木板本 張維序.

자의 孫이 承政院日記에서 증보·재편한 것을 外孫 牧使 李松齡, 孫 象鼎등이 현종 9년(1668)에 尙州에서 중간하였다.³⁰⁾

〈洪崖先生遺藁〉(1冊)는 洪崖 洪侃(?-1304)의 시문집이다. 저자는 생전에 詩名을 떨쳤으나 遺文을 수습하여 편찬, 간행에는 이르지 못했던 것을 인조 7년(1629)에 10세손 澗이 嶺南觀察使로 부임하여 大邱에서 初刊하고 책판을 安東에 藏置하였다.³¹⁾

그 후 安東府에 있던 板本이 난을 겪는 동안 없어지니 숙종 14년(1688)에 12대손 萬朝가 安東부사로 부임하여 전에 堂兄 萬種이 安東의 부사로 있을 때 중간하려고 베껴두었던 冊子를 가지고 重刊하였다.³²⁾

〈北窓古玉兩先生詩集〉(2卷)은 北窓 鄭礪(1506-1549)과 아우 鄭碯(1533-1603)의 시문집을 비롯하여 그의 형제 및 후손의 시문집을 한데 모은 책이다. 이 책은 원래 인조 8년(1630)에 軍威縣에서 生姪인 軍威顯監 蔡亭後에 의하여 간행되었으나 널리 전하지 못하고 湮滅되었다. 그러다가 7세손인 鄭昌順이 정조 9년(1785)에 嶺南觀察使가 되어 軍威縣에서 舊板을 구했으나 傳本이 없자 家藏해 오던 舊集에다 다른 형제와 그 후손의 文集 및 補遺를 넣어서³³⁾ 嶺營에서 목판으로 간행하였다.³⁴⁾

〈李評事集〉(2卷)은 寒齋 李穆(1471-1498)의 시문집이다. 본집은 저자의 曾孫 久證이 인조 9년(1631)에 당시 郡守로 부임하였던 靑松에서 刻手가 없자 刻僧으로 하여금 간행케 한 重刊本이다.³⁵⁾

〈拙翁集〉(10卷)은 拙翁 洪聖民(1536-1594)의 시문집이다. 본집은 저자의 手錄本을 바탕

으로 子 瑞翼이 편집한 定稿本을 손자인 府使 命壽가 인조 9년(1631)에 安東에서 목판으로 初刊한³⁶⁾ 뒤 인조 11년(1633)에 命壽가 다시 嶺南觀察使로 부임하면서 補板한 후쇄본이다.³⁷⁾

〈遁村雜詠〉(1冊)은 遁村 李集(1327-1387)의 시문집이다. 본집은 저자의 자 之直이 1410년 公州에서 初刊한 후, 再刊, 三刊을 거쳐 후손 尙州牧使 如奎가 인조 10년(1632)에 四刊하였다.³⁸⁾ 如奎는 부친의 문집인〈漢陰先生文稿〉를 간행한 후 이번에는 선조의 문집도 아울러 함께 간행한 것으로 여겨진다.

〈西厓先生文集〉(20卷)은 西厓 柳成龍(1542-1607)의 시문집이다. 본집은 저자의 子 陝川郡守 珍이 門人 李竣등과 함께 수집·편차하여 인조 11년(1637)에 陝川에서 초간한 原集·別集이다.³⁹⁾

〈稼亭先生文集〉(20卷)은 稼亭 李穀(1298-1351)의 시문집이다. 본집은 병란등으로 傳本이 귀하게 되자, 이에 宗人 李德洞이 〈稼亭集〉

30) 漢陰先生文稿 奎 4770 12卷6冊 木板本 趙綱序.

31) 洪崖先生遺稿 서울대 古3447-6 1冊 木板本 洪澗跋.

32) 洪崖先生遺稿 서울대 古3447-6 洪萬朝跋.

33) 北窓古玉兩先生詩集 國立一山 古3647-54 2卷2冊 木板本 鄭昌順跋.

34) 北窓古玉兩先生詩集 國立一山 古3647-54 刊記 : 「乙巳(1785)孟冬 嶺營開刊」

35) 李評事集 奎 4748 2卷1冊 木板本 [李]久證跋.

36) 拙翁集 奎 4053 10卷4冊 木板本 張維序.

37) 拙翁集 奎 4053 [洪]命壽跋.

38) 民族文化推進會, 韓國文集叢刊 3.

39) 西厓先生文集 國立 古3648-文59-1 20卷10冊 張顯光跋.

1편을 구하여 嶺南觀察使인 後孫 基祚에게 중간을 부탁하여 인조 13년(1635)에 嶺營에서 간행하였다.⁴⁰⁾

〈仙源遺稿〉(2卷)는 仙源 金尙容(1561-1637)의 시문집이다. 본집은 저자의 子 尙州牧使 光煥이 수집·편차하여 인조 18년(1640)에 간행하였다.⁴¹⁾

〈坡谷遺稿〉(1册)는 破谷 李誠中(1539-1593)의 시문집이다. 본집은 저자의 孫 嶺南觀察使命雄이 수집·편차하여 인조 18년(1640)에 刊行한 初刊本을⁴²⁾ 1749년 6대손 星慶이 완결된 판을 改刻하고 약간의 시문을 增補, 迫切한 후⁴³⁾, 1879년 10대손 永川郡守 鶴來가 다시 補刻한 後刷本이다.⁴⁴⁾

〈保閑齋集〉(17卷)은 保閑齋 申淑舟(1417-1475)의 시문집이다. 본집은 성종 18년(1487)에 校書館에서 甲辰字로 印行하였으나 傳하지를 않는다.⁴⁵⁾ 그 후 인조 23년(1645)에 7대손 派이 榮川郡守로 나갔을 때 初刊本 完帙을 구하여 이를 목판으로 飜刻하였다.⁴⁶⁾ 그러다가 숙종 36년(1710)에 8대손 必淸이 順興都護府使로 나갔을 때 重刊本の 훼손된 부분을 補刻하여 간행하고 板本은 浮石寺에 보관하였다.⁴⁷⁾

〈天坡集〉(4卷)은 天坡 吳翻(1592-1634)의 시문집이다. 본집은 저자의 弟 晉州牧使 翺이 가장초고를 바탕으로 수집·편차하여 인조 24년(1646)에 晉州에서 刊行하였다.⁴⁸⁾

〈靑陸集〉(6卷)은 靑陸 金德謙(1552-1633)의 시문집이다. 본집은 子 金尙이 수집하는 유고를 金尙이 인조 25년(1647)에 慶州府尹이 되어 그동안 혼자 힘으로 간행이 벽차 간직해 왔던 遺稿를 捐捧하여 간행하였다.⁴⁹⁾

〈八谷先生集〉(4卷)은 八谷 具思孟(1531-1604)의 시문집이다. 본집은 저자의 長子 歲이 李植과 함께 4권으로 刪定하여 인조 10년(1632)에 統營에서 목판으로 初刊한 후, 外孫 郡守 沈長世가 李植의 명에 따라 分類再編하고 저자의 三子 용의 竹窓遺稿를 附集하여 인조 26년(1648)에 榮川에서 중간하였다.⁵⁰⁾

〈習齋先生詩集〉(4卷)은 習齋 權지(1520-1593)의 시문집이다. 선조 41년(1608)에 아들이 公州에서 초간하였다. 그 후 후손 權輯이 광해조에 得罪하차 본집 간행이 금지되어 損滅된 板梓만 남았는데, 이것에 의거 權輯이 효종 4년(1653)에 星州牧使로 있으면서 重刊하였다.⁵¹⁾

〈九畹先生集〉(4卷)은 九畹 李春元(1571-1634)의 시문집이다. 본집은 저자의 子 榮川郡守 楚老가 수집, 편차하여 효종 7년(1656)경

40) 稼亭先生文集 연대 811.96-이곡-가-판 20卷4册 李基祚跋

41) 仙源遺稿 奎 4459 2卷2册 木板本 申翺聖序.

42) 坡谷遺稿 國立 古3428-文59-42 1册 木板本(李)命雄序

43) 坡谷遺稿 國立 古3428-文59-42 (李)星慶跋

44) 坡谷遺稿 國立 古3428-文59-42 (李)鶴來跋

45) 辛承云, 成宗朝의 文士養成과 文集編刊, 서울 : 成均館大學校(博士學位論文), 1994, p. 92.

46) 保閑齋集 奎 7095 17卷4册 甲辰字飜刻 申淑舟跋.

47) 民族文化推進會, 韓國文集叢刊解題, 서울 : 同推進會, 1991, p.172.

48) 天坡集 奎 5618 4卷4册 木板本 鄭斗卿序.

49) 靑陸集 奎 3092 6卷3册 木板本 尹尙跋.

50) 八谷先生集 奎 5747 4卷, 附錄 合3册 木板本 沈長世識.

51) 習齋先生詩集 奎 5272 4卷1册 木板本 權輯跋.

榮川에서 간행하였다.⁵²⁾

〈北渚先生集〉(9卷)은 金塗(1571-1648)의 시문집이다. 본집은 저자의 孫 震標가 수집, 편차하여 金尙憲의 刪定을 거쳐 孝宗 9년(1658)에 靑松郡守 時⁵³⁾ 간행하였다.⁵⁴⁾

〈北崖詩稿〉(1冊)은 北崖 李增(1575-1600)의 시문집이다. 본집은 저자의 시문이 兵火로 타버리고 남은 것이 거의 없는 것을 안타깝게 여긴 孫壻 安應昌이 孝宗 10년(1659)에 義城宰 시절에 간행하였다.⁵⁵⁾

〈自庵金先生集〉(2卷)은 自庵 金絳(1488-1534)의 시문집이다. 저자의 시문은 병란으로 많이 유실되었고, 外曾孫이 남아 있는 시문을 모아 家藏하였다. 이것을 孝宗 10년(1659)에

外曾孫의 子 應昌이 義城縣令으로 부임하여 간행하였다.⁵⁶⁾ 외할아버지 문집인 〈北崖詩稿〉에 이은 간행이다.

〈圃隱先生集〉(10卷)은 圃隱 鄭夢周(1367-1392)의 시문집이다. 조선조에 여러차례에 걸쳐 刊行되었으나 본집은 孝宗 10년(1659)에 후손 雲翼이 奉化縣監으로 부임하여 玄風縣監 鄭維城과 함께 관찰사 洪處厚의 도움을 받아 奉化에서 간행한 것이다.⁵⁷⁾

〈水色集〉(8卷)은 水色 許禎(1563-1640)의 시문집이다. 본집은 저자의 후손 縣監 暹이 孝宗 2년(1661)에 河陽縣에서 간행한 후 책판을 河陽縣 環城寺에 藏板한 것이다.⁵⁸⁾

〈南坡相公文集〉(6卷)은 南坡 沈悅(1569-1646)의 시문집이다. 본집은 저자의 從曾孫 趙遠期와 孫 樞가 가장초고를 수집, 편차하고 저자의 妻姪인 嶺南觀察使 任義伯이 합천군수 李善基의 협조를 받아 孝宗 6년(1665)에 간행

하였다.⁵⁹⁾

〈蘇齋先生文集〉(12卷)은 蘇齋 盧守慎(1515-1590)의 시문집이다. 본집은 저자의 曾孫 峻命이 개편한 定稿本을 孝宗 6년(1665)에 峻命의 弟 郡守 景命이 奉化에서 간행한 三刊本이다.⁶⁰⁾

〈松堂先生文集〉(4卷)은 松堂 趙浚(1346-1405)의 시문집이다. 본집은 저자의 9대손 礎이 孝宗 10년(1669)에 星州牧使로 나갔을 때 가장초고를 바탕으로 간행한 것이다.⁶¹⁾

〈魯史零言〉(30卷)은 李恒福이 魯나라의 역사를 事類에 따라 분류한 책이다. 이 책은 이항복이 配所에서 죽은 후 筆寫本으로 몇 편이 전해지다가 그의 손자인 李時顯이 孝宗 14년(1673)에 星州의 牧使가 되었을 때에 발분하여 그의 아들인 世龜에게 명하여 교정을 가하여 간행케 한 것이다.⁶²⁾

52) 九先生集 奎 4326 4卷, 附錄, 合2冊 鄭斗卿序.

53) 嶠南誌 國立 古2750-10 大邱 : 李根泳, 1940, 靑松條.

54) 北渚先生集 奎 5789 9卷, 別集, 合3冊. 木板本 鄭斗卿序.

55) 北崖詩稿 奎 9737 1冊 木板本 鄭斗卿序.

「公孫壻義城安使君應昌 捐俸相役」

56) 自庵金先生文集 奎 4571 4卷3冊 木板本 安應昌跋.

57) 民族文化推進會, 韓國文集叢刊 5.

58) 水色集 奎 7313 8卷4冊 木板本.

藏書記 : 「太白山 … 順治十八年仲秋 冊板刊成于河陽縣 藏于環城寺」.

59) 南坡相公文集 奎 4865 6卷3冊 木板本 任義伯跋.

60) 蘇齋先生文集 奎 5293 10卷, 年譜, 內集2卷, 合8冊 木板本 趙綱後序.

61) 松堂先生文集 奎 15523 4卷2冊 木板本 趙礎序.

〈四禮訓蒙〉(10冊)은 白沙 李恒福이 家子第를 위해 朱熹의 〈家禮〉에서 祭禮를 채택하고 晦齋 李彥迪의 〈奉先雜義〉와 대조하는 한편 三禮의 芻語를 본따서 편성한 책이다. 광해군 14년(1622)에 “안동”에서 초간하고⁶²⁾ 그 후 현종 15년(1674)에 孫子 李時顯이 성주목사로 있으면서 중간하였다.⁶³⁾

〈玉山詩稿〉(1冊)은 玉山 李瑀(1542-1609)의 시문집이다. 본집은 저자의 曾孫 鷄林府尹 東溟이 수집, 편차하여 숙종 6년(1680)에 慶州에서 목판으로 간행한 것이다.⁶⁴⁾

〈茶山集〉(2卷)은 茶山 陸大欽(1575-1638)의 시문집이다. 본집은 저자의 姪 慶尙右道兵馬節度使 存善이 숙종 11년(1685)에 晉州에서 간행한 것이다.⁶⁵⁾

〈松江歌詞〉(1冊)는 鄭澈(1536-1693)의 가사를 5代孫인 星州牧使 鄭觀河가 성주에서 간행한 것이다.⁶⁶⁾

〈楸灘先生集〉(3卷)은 秋灘 吳允謙(1559-1636)의 시문집이다. 본집은 저자의 孫 牧使 道一이 가장초고를 편집하고 年譜와 附錄을 合編하여 숙종 18년(1692)에 星州에서 간행하였다.⁶⁷⁾

〈龍溪遺稿〉(4卷)은 龍溪 金止男(1559-1631)의 시문집이다. 효종 5년(1654)에 외손 李觀夏가 山陰縣監으로 있을 때 수집해 遺稿⁶⁸⁾를 숙종 22년(1696)에 당시 嶺南觀察使였던 李善溥가 板木을 校讐하고 公의 行蹟을 添入하여 숙종 23년(1697)에 간행하였다.⁶⁹⁾

〈東里集〉(19卷)은 東里 李殷相(1617-1678)의 시문집이다. 공의 아들인 李潤朝가 일찍 죽자 사위 金萬重이 그의 始草를 물려 받아서

刪定하여 가장해 두었다. 그 후 숙종 28년(1702)에 金萬重의 아들인 金鎭華가 義城宰 시절에 간행하였다.⁷¹⁾

〈西浦先生集〉(10卷)은 西浦 金萬重(1637-1692)의 시문집이다. 본집은 저자의 子 鎭華가 숙종 28년(1702)에 義城縣令으로 있으면서 수집, 간행한 것이다.⁷²⁾ 역시 외할아버지 문집에 이은 간행이다.

〈鄭文翼公遺稿〉(1冊)은 守夫 鄭光弼(1462-1538)의 시문집이다. 본집은 저자의 10대손 復先이 陝川郡守로 부임하여 숙종 28년(1702)에 간행하였다.⁷³⁾

62) 魯史零言 國立 占朝50-37 30卷15冊 木板本 朴世采序.

63) 四禮訓蒙 서울대일사 占390.951-Y56s 1冊 木板本 金止男跋.

64) 四禮訓蒙 成大A5E-29 1冊 木板本 李時顯跋. 卷末 :「此編是始成於萬曆甲寅(1614) 而天啓壬戌(1622)入梓...崇禎甲寅(1674)時顯得州於茲道重刊之...歲初秋通政大夫行星州牧使商州進管兵馬同僉使時顯敬」

65) 玉山詩稿 延大 811.19-이우-옥 1冊 木板本 李東溟跋.

66) 茶山集 奎 6930 2卷2冊 木板本 權愈序.

67) 松江歌詞 國立 古3610-1 1冊 鄭觀河跋.

68) 楸灘先生集 奎 4031 3卷, 附錄, 合2책 木板本 吳道一跋.

69) 龍溪遺稿 奎 5050 4卷2冊 木板本 吳道一序.

70) 龍溪遺稿 奎 5050 李善溥跋.

71) 東里集 奎 4830 19卷5冊 木板本 金昌協序.

72) 西浦先生集 奎 4059 10卷2冊 木板本 金昌翁序.

73) 鄭文翼公遺稿 延大 811.97-정광필-정-관 1冊 木板本 鄭復善跋

〈鳴臯集〉(10卷)은 鳴臯鎰任(1560-1611)의 시문집이다. 外玄孫인 朴權이 숙종 30년(1704)에 嶺南觀察使로 있으면서 간행하였다.⁷⁴⁾

〈少陵先生集〉(3卷)은 少陵 李商毅(1560-1624)의 시문집이다. 본집은 저자의 현손 震休가 숙종 34년(1708)에 安東大都護府使 時에 간행하였다.⁷⁵⁾

〈梧灘集〉(14卷)은 梧灘 沈收(1620-1688)의 시문집이다. 본집은 저자의 자 漢柱가 숙종34년(1708)에 義城宰 시절에 간행한 것이다.⁷⁶⁾

〈滄溪先生集〉(27卷)은 滄溪 林泳(1649-1696)의 시문집이다. 본집은 저자의 舍弟 淨이 숙종 34년(1708)에 淸道郡守 時에 형의 문집을 간행한 것이다.⁷⁷⁾

〈花浦先生朝天航海錄附西征錄〉(2卷)은 三學士의 한사람인 洪翼漢이 인조 2년(1624) 4월에 權啓의 書壯官으로 명나라에 가서 다음해 4월에 평안도 선사포에 돌아오기 까지의 事蹟을 서술한 것이다. 후손 洪禹錫이 知禮 縣監으로 있던 숙종 35년(1709)에 官費로 “知禮”에서 간행한 것이다.⁷⁸⁾

〈連峯先生文集〉(7卷)은 連峯 李基窩의 시문집이다. 본집은 曾孫 相周가 숙종 36년(1710)에 桐溪 鄭溫의 증손 重元의 교정을 받아 간행하였다.⁷⁹⁾

〈晚悔集〉(11卷)은 晚悔 權得己(1570-1622)의 시문집이다. 본집은 저자의 曾孫 慶州府尹 以鎭이 저자의 子 諤가 편차, 교정한 定稿本에 拾遺, 附錄을 추가하여 숙종 38년(1712)에 목판으로 간행하고, 以前에 子가 판각한 책을 合附한 것이다.⁸⁰⁾

〈楊湖先生遺稿〉(1冊)는 楊湖 閔業(?-1671)

의 시문집이다. 門人 朴世采가 숙종 11년(1685)에 공의 아들인 閔恒의 부탁으로 서문을 쓰고⁸¹⁾, 그 뒤 숙종 39년(1713)에 처남이 嶺南觀察使로 있으면서 간행하였다.⁸²⁾

〈趙司諫封事〉(3卷)은 현종때 성균관 전직 및 사헌부 감찰을 지낸 趙昌期(1640-1676)의 上疏文을 輯錄한 것이다. 숙종 39년(1711)에 저자의 子 正禮가 奉化縣監으로 있을때 간행한 후 太白山에 있는 覺華寺에 藏板하였다.⁸³⁾

〈朽淺先生集〉(8卷)은 朽淺 黃宗海(1579-1642)의 시문집이다. 본집은 저자의 자 鶴立이 숙종 2년(1676)경 가장초고를 바탕으로 수집·편차한 定稿本을 曾孫 應河 從曾孫 固城 縣令 燦등이 숙종 39년(1713)에 固城에서 간행하였다.⁸⁴⁾

74) 鳴臯集 成大 D3B-344 10卷2冊 木板本 朴權跋.

75) 少陵先生集 奎 15387 3卷, 附錄, 合2冊 木板本 [李]震休跋.

76) 梧灘集 國立 古朝46-가1802 14卷7冊 木板本 權尙夏序.

「今其胤漢柱氏 出宰義城 刊公遺稿 … 著雍困敦(1704)」

77) 滄溪先生集 奎 4121 26卷16冊 木板本 [任]淨跋.

78) 花浦先生朝天航海錄附徐征錄 國立 古朝3653-34 2卷, 徐征錄 合2冊 許玢跋.

刊記: 「己丑(1709)五月日 慶尙道知禮官開刊」

79) 連峯先生文集 國立 古朝46-가1132 7卷2冊 木板本 [李]相周跋.

80) 晚悔集 奎 5531 6卷, 附錄, 拾遺, 僭疑 5卷, 合10冊 木板本 [權]以鎭跋.

81) 楊湖先生遺稿 서울大 古3447-39 1冊 木板本 朴世采序.

82) 楊湖先生遺稿 서울大 古3447-39 閔序.

83) 趙司諫封事 서울大 古5120-18 3卷3冊 木板本 趙正禮跋.

刊記: 「辛卯(1711)秋奉化縣刊 太白山覺華寺藏」

〈陽村先生文集〉(40卷)은 陽村 權近(1352-1409)의 시문집이다. 본집은 저자의 아들인 踏에 의해 편찬되었다. 그 후 현종 15년(1674)에 10대손 嶺南節度使 儔가 저자의 外孫인 晋州牧使 南夢賚의 도움을 받아 간행하였다.⁸⁵⁾ 이 板本이 대부분 화재에 流失되고 남은 것도 완결된 것이 많아 印出할 수 없었다. 이에 12대손 燾이 숙종 44년(1718)에 居昌에서 다시 간행하였다.⁸⁶⁾

〈論孟或問義精義通攷〉(14卷)는 宋時烈이 제주도에서 귀양살이 할 때 朱子가 지은 論孟或問과 論孟精義에서 긴요한 말을 뽑아 엮었다. 편자가 미처 탈고하지 못하고 賜死하였으므로 권상하가 스승의 遺命을 받아 교정하고 송시열의 외손 權以鎭이 숙종 46년(1720)에 안동부사로 있을 때 그와 상의하여 간행하였다.⁸⁷⁾

〈月沙先生別集〉(7卷)은 月沙 李庭龜(1564-1635)의 시문집이다. 본집은 현종 14년(1688)에 대구에서 중간한 원집위에 喜祖와 증손 兩臣이 숙종 46년(1720)에 대구에서 追刻한 別集이다.⁸⁸⁾

〈士亭先生遺稿〉(2卷)는 士亭 李之涵(1517-1578)의 시문집이다. 본집은 李選이 홍문관 재임시 輯佚한 초고를 저자의 玄孫 府尹 禎翊이 가장초고를 교정, 증보하여 숙종 46년(1720)에 慶州에서 간행하였다.⁸⁹⁾

〈忠莊公遺事〉(2卷)은 南以興(1540-1627)의 遺事を 모은 것으로 그의 후손인 南益華가 경종 1년(1721)에 漆谷府使로 時에 간행하였다.⁹⁰⁾

〈藥圃先生遺稿〉(7卷)는 藥圃 李海壽(1536-

1598)의 시문집이다. 본집은 숙종 17년(1691)에 李選이 저자의 手錄本과 저자의 子 勸이 수집한 拾遺 및 附錄등을 바탕으로 증보, 편찬한 定稿本을 저자의 外6代孫 부사 趙榮世가 영조 3년(1727)에 安東에서 간행하였다.⁹¹⁾

〈石灘先生集〉(1册) 石灘 李存吾(1341-1371)의 시문집이다. 본집은 저자의 후손 裕慶이 여러 전적에서 輯佚, 編次한 定稿本을 後孫 蔚珍 縣令 行敏이 영조 2년(1726)에 목판으로 간행한 初刊本에 영조 10년(1734)에 行敏이 固城郡守로 부임하면서 관계기록인 初遺를 증보하고 序次를 개정한 追刻後刷本이다.⁹²⁾

〈是窩遺稿〉(8卷)는 是窩 韓泰東(1646 - 1687)의 시문집이다. 본집은 영조 15년(1739)에 후손 牧使 德弼이 星州에서 간행한 후⁹³⁾, 25

84) 朽淺先生文集 奎 5456 8卷4册 木板本 崔錫鼎序. 刊記：「癸巳(1713)夏 固城縣開刊」

85) 陽村先生文集 奎 6329 40卷10册 木板本 許穆序.

86) 民族文化推進會, 韓國文集叢刊 7.

87) 論孟或問義精義通攷 奎 1023 14卷10册 權尙夏跋.

88) 月沙先生別集 서울대 古3428-31 7卷2册 木板本 [李]喜朝跋.

89) 士亭先生遺稿 奎 570 木板本 [李]禎翊跋.

90) 忠莊公遺事 國立 古朝57-가166 2卷2册 木板本.

刊記：「丁卯後九十五年辛丑九月日 玄孫益華 漆谷府使時開刊」

91) 藥圃先生遺稿 延大 811.97-이해수-약 7卷3册.

刊記：「丁未(1727)孟秋 外六代孫咸安趙榮世謹誌」

92) 石灘先生集 延大 811.96-탁광무-경-오 1册 木板本 [李]行敏跋.

93) 是窩遺稿 서울대 古3428-22 8卷, 附錄, 合3册.

卷首：「上之十五年己未(1739) 孫德弼守星山 板藏于海印寺」

년후인 영조 39년(1763)에 역시 후손 牧使 德一이 星州에서 追刊한 후 海印寺에 藏板하였다.⁹⁴⁾

〈漁溪先生集〉(2卷)은 漁溪 趙旅(1420-1489)의 시문집이다. 이 문집의 초간본이 연대가 오래되고 병란을 거치면서 유실되어 전해지는 것이 별로 없자 영조 18년(1742)에 9대손 榮祐이 安陰縣監으로 있을 때 族人과 더불어 여러 諸本을 모아 참고하여 잘못된 것을 고치고 敍次를 바로 잡아 간행하였다.⁹⁵⁾

〈陰崖先生集〉(4卷)은 陰崖 李紆(1480-1533)의 시문집이다. 본집은 선생의 저술이 兵란으로 散失되어 거의 없어지자 6대손 李道興이 수년동안 수집한 것을 영조 30년(1754)에 당시 嶺南觀察使였던 族孫 李彝章과 함께 嶺營에서 간행하였다.⁹⁶⁾

〈丈巖先生集〉은 丈巖 鄭澐(1648-1731)의 시문집이다. 본집은 저자의 자 鄭義河가 편집하여 안동부사인 손자 鄭실이 영조 32년(1756)에 安東에서 간행하였다.⁹⁷⁾

〈久堂先生集〉(33卷)은 久堂 朴長遠(1612-1672)의 시문집이다. 본집은 久堂의 死後 아들이 편집하여 둔 초고를 저자의 曾孫 朴文秀가 영조 36년(1730)에 嶺南觀察使로 재직시에 嶺營에서 간행한 것이다.⁹⁸⁾

〈獨庵遺稿〉(1冊)은 獨庵 趙宗敬(1495-1535)의 시문집이다. 영조 36년(1760)에 저자의 7대손 鼎이 舊本에다 墓碣 등을 덧붙여 嶺南觀察使로 있을 때 三刊하였다.⁹⁹⁾

〈寒水齋先生文集〉(35卷)은 寒水齋 權尙夏(1641-1721)의 시문집이다. 영조 37년(1761)에 外曾孫 黃仁儉이 嶺南觀察使로 있으면서

定性의 아들 雲應과 더불어 改刊했다.¹⁰⁰⁾

〈再造藩邦志〉(4卷)는 申穉이 선조 10년(1577)부터 선조 40년(1607)까지의 임란전후 30여년 동안에 걸친 조선과 명의 관계와 명의 후원을 받은 再造의 사실을 적은 책으로, 저자의 자 申以華가 영조 29년(1753)에 榮川郡에서 간행한 것이다.¹⁰¹⁾

〈月嶽書疏〉(1冊)은 조선조후기의 문신이며, 청렴결백한 性品과 文章으로 이름이 높은 月嶽 韓祉(1675 ~ ?)가 올린 상소를 모은 것이다. 영조 39년(1763)에 아들 德一이 星州牧使로 있을 때에 간행한 것이다.¹⁰²⁾

〈芸齋遺稿〉(2卷)는 芸齋 李坪(1648-1703)의 시문집이다. 본집은 族曾孫 李灑가 영조 46년(1770)에 嶺南觀察使로 있을 때 편집하여 간행하였다.¹⁰³⁾

94) 是齋遺稿 서울대 古3428-22
刊記 : 「己未後二十五年癸未(1763) ... 韓德一 繼牧星州追刊」

95) 漁溪先生集 奎 4561 2卷1冊 木板本 朴弼周序.

96) 陰崖先生集 奎 7158 4卷2冊 木板本 金在魯序.

97) 丈巖先生集 國立 古朝46-가259 26卷15冊 鄭실 跋.

98) 久堂先生集 藏 4-5774 29卷, 附錄 4卷, 合12冊 木板本
刊記 : 「庚戌(1730)四月 達成館開刊 海印寺藏板」

99) 獨庵遺稿 國立 古朝46-가112 1冊 木板本 鄭存謙序.

100) 寒水齋先生文集 成大 D3B-1137 本集34권, 15冊 尹鳳九序.

101) 再造藩邦志 奎 4494 4卷4冊 木活字本 申以華跋.
刊記 : 「癸酉(1693)仲秋 以活字印行于榮州郡」

102) 月嶽書疏 奎 7823 1冊 木板本.
刊記 : 「己卯後二十五年癸未 子德一 繼牧星州追刊」

103) 芸齋遺稿 奎 5031 2卷, 附錄 1冊 木板本 李灑 序.

〈正菴集〉(20卷)은 正菴 李顯益(1678-1717)의 시문집이다. 본집은 저자의 孫子인 尙進이 영조 49년(1773)에 大邱判官으로 있을 적에 간행하였다.¹⁰⁴⁾

〈晋庵集〉(8卷)은 晋庵 李天輔(1648-1761)의 시문집이다. 공의 從兄 李鼎輔, 從弟 李益輔가 문인 黃景源과 金陽澤에게 刪定, 類次하게 하여 영조 38년(1762)에 간행했다.¹⁰⁵⁾ 그 후 판이 흩어지자 아들 李文源이 정조 5년(1781)에 嶺南觀察使로 있으면서 중간하였다.¹⁰⁶⁾

〈疎庵先生集〉(6卷)은 疎庵 任叔英의 시문집이다. 본집은 인조 13년(1635)에 忠州에서 목판으로 초간된 뒤, 五世孫 하양현감 希澤이 정조 7년(1787)에 하양에서 拾遺를 增補, 迫切하고 완결된 부분을 補刻하였다.¹⁰⁷⁾

〈閒靜堂集〉(8卷)은 閒靜堂 宋文欽(1710-1752)의 시문집이다. 본집은 사위 金光默이 정조 12년(1788)에 嶺南觀察使로 있으면서 자기 봉급을 내어 약간본을 印行하여 선비들과 벗에게 주었다.¹⁰⁸⁾

〈守拙齋家訓〉(1冊)은 先祖 姜宗說의 家訓이 세상에 전해져 학자로 하여금 널리 읽히고자 하는 의도에서 5대손 遊가 靑松郡守 時에 간행하였다.¹⁰⁹⁾

〈文平公詩集〉(4卷)은 月川 金吉通(1408-1473)의 시문집이다. 본집은 순조 1년(1801)에 十代孫 聖堦가 豊基郡守 時에 간행하였다.¹¹⁰⁾

〈水北遺稿〉(4卷)은 水北 金光炫(1584-1628)의 시문집인데, 6대손인 羲淳이 순조 5년(1805)에 嶺南觀察使로 있으면서 遺文을 수집, 편차하여 嶺營에서 간행하였다.¹¹¹⁾

〈退漁堂遺稿〉(7卷)는 金鎭商(1684-1755)의

시문집이다. 본집은 저자의 孫 相穆이 순조 5년(1805)에 咸陽郡守일 적에 간행하였다.¹¹²⁾

〈廳松先生集〉(4卷)은 廳松 成守琛(1493-1564)의 시문집이다. 본집은 저자의 8대손 肯柱가 豊基郡守로 있을 때 嶺南觀察使 尹光顯의 跋을 받아 순조 6년(1806)에 豊基에서 간행하였다.¹¹³⁾

〈牛溪先生集〉(10卷)은 牛溪 成渾(1535-1598)의 시문집이다. 본집은 순조 9년(1809)에 7대손 肯柱가 密陽의 守令으로 있을 때 重刊한 후 昌寧의 勿溪書院에 藏板하였다.¹¹⁴⁾

肯柱는 순조 6년(1806) 豊基郡守 時에 〈廳松先生文集〉을 간행한 후 순조 8년(1808)에 密陽郡守가 되어 본집을 간행한 것이다.

104) 正菴集 奎 6672 20卷10冊 木板本 金亮行序.

105) 晋庵集 서울대 占819.54-Y52j 8卷4冊 木板本 黃景源序.

106) 晋庵集 서울대 占819.54-Y52j 李文源跋

107) 疎庵先生集 延大 811.98-임숙영-소-판 6卷2冊 木板本 張維序.

108) 閒靜堂集 奎 4278 8卷4冊 木板本 宋時烈序.

109) 守拙齋家訓 國立 古朝44-가82 1冊 木板本.

刊記: 「己酉(1789)四月日 靑松府開刊」

110) 文平公詩集 延大 811.19-김길동-문-판 1冊 木板本 金蓋國跋.

刊記: 「辛酉(1801)十二月 十代孫聖堦 豊基郡守時開刊」

111) 水北遺稿 奎 3411 4卷, 附錄, 合2冊 木板本 金羲淳序.

112) 退漁堂遺稿 國立 古朝46-가213 7卷3冊 木板本 金相穆跋.

113) 廳松先生集 奎 3574 4卷1冊 木板本 尹光顯跋.

114) 牛溪先生集 國立 古朝46-가160 5卷, 續集 5卷, 6冊 木板本.

卷末: 「先生下世後二百十二年己巳 七代孫肯柱 宰密陽重刊 藏板於昌寧勿溪書院」

〈直菴集〉(20卷)은 直菴 申暲(1696- ?)의 시문집이다. 잇달은 喪變으로 거의 산일되어 當世에 사용되지 못하다가 舍弟 金會淵이 순조 11년(1811)에 嶺南觀察使로 있으면서 재차 수집하여 간행하였다.¹¹⁵⁾

〈休翁集〉(5卷)은 休翁 沈光世(1577-1624)의 시문집이다. 본집은 인조 14년(1636)경 李植의 刪定을 거쳐 목판으로 초간한 후, 9대손 沈光澤이 철종 9년(1858)에 嶺南觀察使로 있으면서 증보하여 그 이듬해 철종 19년(1859) 정월에 嶺營에서 중간하였다.¹¹⁶⁾

〈經禮類纂〉(5卷)은 古禮說에 대한 견해를 그 후손과 후학들이 모여 편찬한 禮說로, 주로 喪禮와 祭禮에 관한 것을 모아 놓았다. 이 책은 원래 숙종때 만들어진 것인데, 2백년간 그대로 내려오던 중 허목의 6대손 許憲이 族孫인 宜寧縣監 장찬씨와 함께 고종 19년(1882) 宜寧에서 간행하였다.¹¹⁷⁾

〈濯纓文集〉(6卷)은 濯纓 金駟孫(1464-1498)의 시문집이다. 본집은 중종 7년(1512)에 淸道에서 初刊된 후 再刊, 三刊, 四刊을 거쳐¹¹⁸⁾ 光武 7年(1903)에 후손 縣監 榮灑가 年譜와 家藏草本으로 續集을 편차하여 義城에서 五刊하였다.¹¹⁹⁾

4.3 스승 顯揚

둘째, 스승의 현양을 위해 간행된 것으로는 〈蓀谷集〉을 비롯하여 7종이 있다.

〈蓀谷集〉(6卷)은 蓀谷 李達(1539-1618)의 시문집이다. 본집은 저자의 제자 許筠이 수집하고 李再榮이 편차한 것을 광해군 10년

(1618)에 慶州府尹 許堯수가 간행하였다.¹²⁰⁾

〈蘇齋先生文集〉(12卷)은 蘇齋 盧守愼(1595-1590)의 시문집이다. 본집은 선조 35년(1602)에 저자의 從子 郡守 大河가 天安에서 목판으로 初刊하고, 인조 2년(1624)에 門人 牧使 康復誠이 星州에서 重刊하였다. 그 후 효종 3년(1652)에 曾孫 峻命이 改編한 定稿本을 현종 6년(1665)에 峻命의 弟 郡守 景命이 奉化에서 三刊하였다.¹²¹⁾

〈白沙先生集〉(30卷)은 白沙 李恒福(1556-1618)의 시문집이다. 인조 7년(1629)에 李顯英이 嶺東觀察使로 있을때 공의 같은 門客이었던 江陵府使 李命俊이 처음으로 간행하였다.¹²²⁾

그러나 이 초간본은 編次가 적당하지 못하고 문하의 선비들이 후학의 비평을 두려워 하여 重刻을 도모하였다. 그런데 마침 鄭忠信이 인조 13년(1635)에 晋州의 節度使가 됨에 공을 모아 重刻하였다.¹²³⁾

〈明谷集〉(34卷)은 明谷 崔錫鼎(1646-1715)의

115) 直菴集 奎 1620 20卷10册 木板本 金世淵跋.

116) 休翁集 藏 4-6705 5卷2册 木板本 [沈]敬澤跋.

117) 經禮類纂 成大 A5E-10 5卷4册 木板本 許憲跋.
刊記: 「是歲(1882)季夏 宜寧新刊」

118) 民族文化推進會, 韓國文集叢刊 17.

119) 濯纓集 國立一山 古3648-文10-93 6卷2册[金]榮灑跋.

120) 蓀谷集 國立一山 古3644-54 6卷1册 木板本 許端甫序.
「慶州尹許堯乎得祕閣本 將梓而行」

121) 蘇齋先生文集 奎 5293 原集10권, 年譜, 行狀, 內集 2권 合8册 趙綱後序.122) 白沙先生集 國立 古朝 46-가16 23卷, 附錄 3卷, 合15册 木板本 張維序.

122) 白沙先生集 國立 古朝46-가16 23卷, 附錄 3卷, 合15册 木板本 張維序.

123) 白沙先生集 國立 古3648-文62-220 張維重刊跋.

시문집인데, 그의 死後 문인 趙泰億에 의해 간행된 것이다. 원래는 嗣子인 昌大가 문인들과 함께 遺集을 편집하여 간행하려고 했으나 뜻을 이루지 못하고 죽기 전에 趙泰億에게 문집의 간행을 부탁하였다. 이에 조태억이 경종 1년(1721)에 嶺南觀察使로 있으면서 간행하였다.¹²⁴⁾

〈率菴遺稿〉(1冊)은 率菴 趙綸(生沒年未詳)의 시문집인데, 저자의 대해서는 별로 알려진 사실이 없다. 공이 죽자 그 遺稿가 泯沒되는 것을 애석하게 여긴 門人 李箕鎭이 영조 15년(1739)에 嶺南觀察使로 있으면서 간행하였다.¹²⁵⁾

〈龜峯先生集〉(11卷)은 龜峯 宋翼弼(1534-1599)의 시문집이다. 본집은 저자의 문인 縣監 沈宗直이 수집, 선정한 시집을 광해군 14년(1622)에 洪山에서 목판으로 간행된 후, 숙종 연간에 저자의 庶子 就大가 저자 생전에 수집한 초고를 刪定, 編輯하여 板刻하던 중 時事로 인하여 중단되자 이를 門人 金鎭玉에게 위촉하였고, 金鎭玉의 孫子 相聖이 宋時烈的 편집 방침에 따라 초고를 刪定, 增補하고 저자의 弟 翰弼의 雲谷稿를 附集하여 영조 38년(1762)에 義城에서 간행하였다.¹²⁶⁾

〈兼山集〉(20卷)은 兼山 俞肅基(1696- ?)의 시문집이다. 저자의 死後 그의 遺稿가 오랫동안 책장안에 간직되어 오다가 영조 51년(1775)에 嶺南觀察使로 부임한 門人 金載順이 공의 맏아들 俞彦傳와 함께 간행하였다.¹²⁷⁾

44 緣故者 顯揚

관찰사 및 수령이 친분이 있는 저자 후손의 부탁을 받고 간행한 것이 있는데, 모두 6종이다.

〈旅軒先生文集〉(11卷)은 旅軒 張顯光(1554-1637)의 시문집이다. 본집은 저자의 자 應一이 門徒 趙任道 등과 함께 인조 17년(1639)경 가장초고를 바탕으로 수집하여 原·續集으로 편차하고 인조 20년(1642)에 仁同都護府使 金應祖의 협조로 원집을 性理說과 함께 仁同에서 간행하였다.¹²⁸⁾

〈月川先生集〉(6卷)은 月川 趙穆(1524-1606)의 시문집이다. 본집은 저자의 자 錫明의 가장초고를 바탕으로 禮安縣監 李碩寬이 許穆의 편차를 거쳐 현종 7년(1666)에 子의 부탁으로 간행하였다.¹²⁹⁾

〈漫浪集〉은 漫浪 黃摯(1604-1656)의 시문집이다. 본집은 저자의 자 應老가 수집, 편차하여 현종 9년(1668)에 당시 嶺南觀察使 沈粹의 도움으로 간행하였다.¹³⁰⁾

〈月沙先生集〉(68卷)은 月沙 李廷龜(1564-1635)의 시문집이다. 본집은 저자의 自編稿를 인조 14년(1636)에 門徒 牧使 崔有海가 공주에서 목판으로 초간한 후, 孫 翊相 曾孫 喜祖 등이 교정, 재편하고 부록을 추가하여 閔鼎重, 嶺南觀察使 李世華의 협조로 현종 14년(1688)에 대구에서 원집을 중간하였다.¹³¹⁾

〈泛翁集〉(6卷)은 泛翁 洪柱國(1623-1680)의

124) 明谷集 奎 1707 34卷17冊 木板本 趙泰億序.

125) 率菴遺稿 奎 15214 1冊 木板本 李世愿序.

126) 龜峯先生集 奎 4076 11卷5冊 木板本 金相聖跋.

127) 兼山集 奎 4340 20卷10冊 木板本 金亮行序.

128) 民族文化推進會, 韓國文集叢刊 60.

129) 月川先生集 奎 4583 6卷4冊 木板本 金應祖跋

130) 漫浪集 奎 4304 9卷3冊 木板本 沈粹跋.

131) 月沙先生集 서울대 古3428-30 63권, 附錄 5권, 合22책 木板本 [李]喜朝跋

시문집이다. 숙종 12년(1685)에 아들 洪萬選이 金昌協에게 교정을 청하여 편집, 간행한 것이다. 柱國의 유고는 그의 死後 약30년간 家藏되어 있었는데, 그의 長子 萬選이 遺稿를 名士에게 청해 刪太를 가한 후에 숙종 35년(1709)에 義城에서 출간하였다.¹³²⁾

〈谷雲集〉(6卷)은 谷雲 金壽增(1624-1701)의 시문집이다. 본집은 저자의 손 致謙이 從子 昌翁의 刪定을 거친 가장초고를 嶺南觀察使 李宜顯의 협조로 숙종 37년(1711)에 嶺營에서 간행하였다.¹³³⁾

상술한 바와 같이 官職利用 刊本の 刊行目的에 있어서는 관찰사 및 수령의 자신 현양을 위한 간행이 3종, 선조 및 친족현양을 위한 간행은 90종, 스승과 연고자 현양을 위한 간행은 각각 7종, 6종으로 나타났다. 이 중에서 관찰사 및 수령의 선조 및 친족 현양을 위한 간행이 85%를 차지하여, 그중에서도 선조 자신들의 조상을 현양하기에 가장 힘쓴 것으로 나타나 그 당시의 문벌중시 풍토를 여실히 드러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4. 官職利用 刊本の 性格

관직이용 간본의 성격에 있어서 특징적인 것을 구분지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官職利用 刊本은 대부분이 저자의 본관이나 출생지와는 관련이 없는 지역 즉 後孫이나 門人이 관찰사나 수령으로 부임한 지역에서 간행되었다.

이들 서적의 刊行地와 著者의 관계를 살펴

보면, 비록 저자의 緣故地가 문헌에 나타나지 않은 것이 있다 할지라도 저자의 本貫이나 出生地에서 간행된 것은 6종에 불과하다. 그 중 〈益齋亂藁〉(10卷)는 李齊賢의 本貫인 “慶州”에서, 〈洪崖先生遺稿〉(1冊)은 洪侃의 출생지인 “安東”에서, 〈圃隱先生集〉(10卷) 〈湖亭鄭先生實記〉(8卷)는 鄭夢周, 鄭世雅의 출생지인 “永川”에서, 〈龜峯先生集〉(11卷)은 宋翼弼의 출생지인 “義城”에서, 〈三韻通考補遺〉(5卷)는 朴斗世의 출생지인 “蔚山” 등지에서 각각 간행되었다. 이로 보아 간행은 관찰사나 수령의 연고지보다는 赴任地에서 행해졌음을 알 수 있다.

이에 관련된 인물들의 本貫, 出生(居住)地 등은 〈嶺南人物考〉¹³⁴⁾ 〈韓國歷代人物集成〉¹³⁵⁾ 〈嶠南誌〉¹³⁶⁾ 〈嶠南科榜錄〉¹³⁷⁾ 및 文集의 年譜, 行狀, 墓碣銘 등에 나타나고 있다.

둘째, 간행자와 저자의 관계를 살펴보면 後孫 72%, 弟 3.5%, 親族 14.5%, 門人 7%, 本人 3%로 후손이 조상의 문집을 간행한 것이 가장 우위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다른 지방과는 달리 嶺南은 各邑마다 土城土族이 隱居하면서 그들의 子弟教育을 열심히 시켰기 때문에 文士가 계속 배출되고, 이들은 京鄕간

132) 泛翁集 奎 6211 6卷, 附錄, 合3책 木板本 金昌協序. 刊記: 「己丑(1709)季春 義城開刊」

133) 谷雲集 奎 5745 6卷3冊 木板本 金昌翁序.

134) 蔡弘遠, 嶺南人物考, 서울: 探求堂, 1978.

135) 李相殷, 韓國歷代人物集成 1~5, 서울: 民昌文化社, 1990.

136) 國立 古2750-10 嶠南誌, 鄭源鎬編, 大邱: 李根泳, 1940.

137) 嶠南科榜錄 國立 古朝26-53.

을 왕래하면서 또는 지방의 守令으로 재직하면서 조상이나 스승의 문집을 간행한 것으로 미루어 보면 당연한 귀결이라 하겠다.

세째, 刊行 內容에 있어서는 文集類, 史書類, 經書類, 儒書類·詔令奏議類, 傳記·地理·兵書·詞曲類 順인 것으로 보아 관직이용 간본은 經, 史, 子, 集에 걸쳐 간행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중에서도 文集類가 106종 중 91종으로 86%를 차지해 관직이용 간본의 특징을 여실히 나타내 주고 있다.

네째, 간행대상이 되는 문집 및 저술등의 저자관계에 있어서는 부자간, 할아버지와 손자간 또는 스승과 제자간등 여러가지 양상이 나타나고 있다.¹³⁸⁾

- 1) 水北 金光炫(1584-1647)은 仙源 金尙用(1561-1637)의, 牛溪 成渾(1535-1598)은 廳松 成守琛(1493-1564)의, 是窩 韓泰東(1646-1687)은 月嶽 韓祉(1675-?)의 子이다.
- 2) 白沙 李恒福(1556-1618)은 晦齋 李彦迪(1491-1553)의 손자이며, 이언적은 益齋 李齊賢(1287-1367)의 후손이다. 또한 鄭昌順(1727-?)은 北窓 鄭陞(1506-1549)의 후손이다.
- 3) 直菴 中暉(1696-?)은 南溪 朴世采(1631-1695)의, 休翁 沈光世(1577-1624)는 八谷 具思孟(1531-1604)의 외손자이며, 東里 李殷相(1617-1678)은 少陵 李尙毅(1560-1624)의 외손자인 동시에 月沙 李庭龜(1564-1635)의 손자이다.
- 4) 仙源 金尙用, 楸灘 吳允謙(1559-1636) 鳴臯 任金典(1560-1611)은 牛溪 成渾의, 濯纓 金駟孫(1464-1498), 李評事 李穆

(1471-1498)은 佔畢齋 金宗直(1431-1492)의, 農巖 金昌協, 丈巖 鄭皓는 尤庵 宋時烈(1607-1689)의, 成守琛은 靜菴 趙光祖(1482-1519)의, 李俊은 西厓 柳成龍(1542-1607)의, 滄溪 林泳(1649-1696)은 南溪 朴世采의, 洪翼漢(1586-1637)은 月沙 李庭龜의 門人이다.

- 5) 蘭雪軒 許楚姬(1563-1589)는 蓀谷 李達(1539-1618)에게서 시를 배웠다.

다섯째, 서적의 開板에 있어서는 거의 官署에 소속된 刻手를 이용하고, 필요시에는 다른 관서의 刻手 또는 僧侶¹³⁹⁾까지 동원하였다. 그러나 후자의 경우는 그 예가 드물어 결국 板刻을 담당한 주역은 官人身分의 刻手였음을 알 수 있다. 이는 慶尙監營에서의 「刊役式例」를 수록하고 있는 <嶺營事例>¹⁴⁰⁾를 통하여 알 수 있다.

5. 結 論

이상에서 고찰한 내용을 요약하여 결론으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 1) 刊行 主體로서의 관찰사와 수령은 一道를 통괄하는 막중한 지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官의 물자를 이용하여 邑吏의 도

138) 註 133~136 참조.

139) 李評事集 奎 4748(李)久證跋.

「適守青松 欣副宿願 而邑無刻手 爲募二僧 僅得印布 … 崇禎紀元之四年」

140) 曉星女子大學校所藏本 1册 寫本.

움을 받아 자신들의 조상이나 스승顯揚을 위한 서적간행에 치중하였으니 그 당시 조선후기 영남지방의 사회적 특징을 엿볼 수 있다.

- 2) 刊行 目的에 있어서는 觀察使나 守令이 자기자신을 드러내기 위한 간행은 3종에 불과한데, 이는 자신을 현양하기를 기피했다기 보다는 저술이 없었는 데서 기인한 것으로 여겨진다. 祖上이나 스승현양에 있어서는 祖上 文集이 스승 문집보다 많은 종수가 간행된 것으로 보아 관찰사나 수령이 조상현양에 더 치중했음을 알 수 있다. 게다가 이들은 자신과 緣故관계가 있는 저자 후손들의 부탁을 받고 그들 조상의 文集까지 간행하였으니 이러한 현상은 嶺南地方이 가장 심했을 것이나 他道도 이와 유사할 것이라 생각된다.
- 3) 刊行 性格에 있어서 간행지는 대개 관찰사나 수령의 연고지보다는 부임지에서 이루어 졌다. 刊行者는 저자의 후손이 주를 이루며, 내용은 문집류가 압도적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에서도 개인 문집이 대부분을 이루나 父子간, 祖父와 孫子간, 外祖父와 孫子간 그리고 스승과 弟子간의 문집 등도 아울러 간행되었다.
- 4) 刊行 時期에 있어서는 宣祖 2종, 光海君 3종, 仁祖 19종, 孝宗 6종, 顯宗 12종, 肅宗 28종, 景宗 2종, 英祖 18종, 正祖 6종, 純祖 6종, 哲宗 1종, 高宗 3종 등 總 106종이다. 간행이 많이 이루어진 왕조는

仁祖, 肅宗, 英朝이다. 仁祖는 임란후 물자의 缺乏과 世態가 안정치 못하였는데도 불구하고 19종의 간행이 있었던 것은 士禍로 政界에서 은퇴해 지방에 蟄居하면서 지방문화를 주도한 士林派와 이를 계승한 嶺南學派의 영향이라 볼 수 있겠다. 숙종조의 간행이 首位를 차지하는 것은 서원의 濫設이 숙종조에 가장 활발한데다 17, 18세기에 들어서면서 조선조의 身分體制가 크게 무너져 간데 기인한다고 하겠다. 17, 18세기의 政治的, 社會經濟的 변화는 양반층, 농민층을 분해시킴으로서 신분의 혼란을 초래하였다. 토호적인 생활기반을 가지고 있던 嶺南兩班 조차도 오랫동안 정권에서 소외되자 士族(정권에 참여하고 있던 양반)에서 鄉族(지방양반)으로 지위가 떨어 졌다.¹⁴¹⁾ 바로 지위몰락은 경제력의 상실을 가져왔으니 이 점이 嶺南地方에서 肅宗朝에 官職利用 刊本이 가장 많다가 英祖朝때 줄어들더니 正·純祖朝를 기점으로하여 조선말기까지 급격히 떨어지는 현상을 초래한 것이다.

141) 韓汝勳, 前揭書, p.312.

參考文獻

- 高麗大學校中央圖書館, 1979. 晚松金完變文庫目錄(高麗大學校藏書目錄 第14輯), 서울: 同圖書館.
- _____, 1984. 漢籍目錄(高麗大學校藏書目錄 第18輯), 서울: 同圖書館.
- 國立中央圖書館, 1970~. 古書目錄 1~5, 서울: 同圖書館.
- 國史編纂委員會, 1970. 朝鮮王朝實錄(影印本) 서울: 同委員會.
- 文化財管理局藏書閣, 1962. 藏書閣圖書韓國版總目錄, 서울: 同閣.
- 民族文化推進會, 1990~. 韓國文集叢刊, 서울: 同推進會.
- 서울大學校圖書館, 1981. 奎章閣韓國本總目錄上下, 서울: 同圖書館.
- _____, 1981~. 奎章閣圖書韓國本圖書解題經~集部, 서울: 同圖書館.
- 宋浚浩, 1989. 朝鮮社會史 研究 - 朝鮮社會의 構造와 性格 및 그 變遷에 관한 研究, 서울: 一潮閣.
- 延世大學校中央圖書館, 1977. 古書目錄, 서울: 同圖書館.
- 李相殷, 1990. 韓國歷代人物集成, 서울: 民昌文化社.
- 李樹健, 1989. 朝鮮時代地方行政史, 서울: 民音社.
- 李瀾, 1967. 星湖僿說(影印本), 서울: 慶熙出版社.
- 李存熙, 1990. 朝鮮時代 地方行政制度 研究, 서울: 一志社.

- 李勛相, 1990. 朝鮮後期の 鄉吏, 서울: 一潮閣.
- 趙斗淳 等, 1972. 經國大典(影印本, 朝鮮王朝法典集 4), 서울: 景仁文化社.
- 蔡弘遠等, 1978. 嶺南人物考, 서울: 探求堂.
- 韓國學文獻研究所, 1986. 地方志 ②, 慶州, 서울: 亞世亞文化社.
- 韓江勳, 1986. 韓國通史(改訂板), 서울: 乙酉右文化社.

論 文

- 金允植, 1978. 鏤板考의 書誌의 研究, 서울: 成均館大學校大學院(碩士學位論文).
- 金容雲, 1981. "韓國數理曆算史考 - 李朝曆算을 중심으로" <傳統科學> 2, 서울: 漢陽大學校韓國傳統科學研究所.
- 김필동, 1982. "朝鮮後期 地方胥吏集團의 組織構造(上) - 社會的 接近" <韓國學報> 28.
- 辛承云, 1994. 成宗朝의 文士養成과 文集編刊, 서울: 成均館大學校(博士學位論文), p. 92.
- 李成茂, 1976. "朝鮮初期의 鄉吏", <韓國史論文選集 IV. 朝鮮前期篇>.
- 李義權, 1992. "朝鮮後期 邑吏의 地方統治 行政機能" <全北史學>15.
- 張仁鎮, 1980. "朝鮮後期 慶尙監司考 - 특히 大邱監營에서 甲午更張까지의 在任監司를 중심으로 -" <圖協月報>21.